

자기공명영상에서 측정한 정상 한국 성인 여성의 질각

**김종철 · 유동균**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

**목적 :** 골반 자기공명영상의 치골 결합부가 보이는 횡단면에서 특징적인 H-모양을 보이는 질의 H-모양 횡측과 종측이 만나는 내측 각도를 질각이라고 하는데, 이 질각은 질과 인접한 자궁이나 골반 부 구조물의 변형이 있을 경우 그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. 한국 정상 성인 여성인 질각 평균치를 연령별로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.

**대상 및 방법 :** 최근 8개월간 본원에 내원하여 골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, 자궁과 질을 포함한 골반부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50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의 연령은 21-84세(평균 54세)였다. 44명은 출산의 경험이 있었는데, 이 중 28명은 질식 분만, 14명은 제왕 절개술, 2명은 질식 분만과 제왕 절개술 모두를 경험했다. 치골 결합부가 보이는 자기공명영상 횡단면에서 질각의 유무와 모양을 관찰하고, H-모양의 좌우측 질각을 측정하였다. 질각의 평균값을 산출하고, T-test를 이용하여 양측 질각의 차이 및 환자의 연령과 출산 경로에 따른 질각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.

**결과 :** 50명 환자의 질각 평균치는 좌측이 122.7° , 우측이 121.8° 이었다. 좌측과 우측의 질각은 대칭적인 모양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( $p=0.38$ ), 모든 환자에서 좌측과 우측의 질각의 차이가 10° 이내이었다. 5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질각이 각각 123.2° , 121.1° 이었고, 5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각각 122.7° , 121.8° 이었으며, 양 연령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=0.42$ ). 예전에 질식 분만을 한 여성에서는 좌우 질각이 각각 123.2° , 122.2° 이었고, 제왕 절개 수술을 받은 여성에서는 123.5° , 123.1° 이었으며, 양 군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=0.18$ ).

**결론 :** 한국 정상 여성의 질각은 연령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, 좌우측 질각이 10° 이내의 차이만 보였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상적인 질각의 값을 심하게 초과하거나 좌우측의 질각이 10° 이상 차이가 날 경우, 골반내에 질각의 변형을 초래할 만한 여러 가지 질환의 동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.